

2005년 쿠폰제 경영컨설팅 기업의 재무성과

이성환^{1*}

¹배재대학교 컨설팅대학원 교수

An Analysis on the Firms' Financial Performance of 2005 Coupon-System Management Consulting

Lee, Sung Hwan^{1*}

¹The Graduate School of Consulting Paichai University

요약 기업 경영이 점차 글로벌화 되어가는 환경 하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되었다. 그동안 실증적인 사후자료에 의한 평가는 전무한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쿠폰제 경영컨설팅 사업을 통한 사업참여 중소기업의 재무적 상황을 중심으로 사업참여 전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본 사업의 시행성과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검증결과 경영컨설팅 전후 대부분의 대립가설은 기각되고, 성장성지표의 매출액증가율 및 활동성지표의 경영컨설팅 후 2년 총자산회전율은 기각되지 않아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역의 영향력(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쿠폰제 경영컨설팅사업의 실질적인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Abstract It has been over a decade since the business consulting services by SMBA started in order to build up competitiveness through supporting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under the business environment of globalization. No matter how there is no post empirical data of evaluation.

Therefore, this study is focused on analysing the practical performance of Coupon System Management Consulting(CSMC) by comparing the financial condition for a few years before and behind since the companies have been involving in.

As a result, the statistical significances of research hypotheses were rejected for the most part. Moreover, the growth rates of sales and total assets of which each of them is one of the indicators concerning growth and activity, are negatively significant, which means that CSMC the needs comprehensive consideration about its efficiency and in all its aspects.

Key Words : Coupon System, Management Consulting

1. 서론

1999년 외환위기로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중소기업청에서는 컨설팅 지원사업을 시작하여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생산성 제고 등의 경쟁력 강화와 국내 컨설팅 산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컨설팅이란 타산업의 지식집약화 확산으로 고부가가치 창출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지식서비스업으로 전문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 컨설팅 지원사업에서의 부실컨설팅과 도덕적 해이라는 문제점은 컨설팅의 효용성에 대한 불신을 가져왔고, 과연 컨설팅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다.

2002년 기업회계 부정사건으로 미국 경제의 근간을 흔들었던 엔론 및 월드컴 사태로 세계 5위 컨설팅 및 회계법인 아서 앤더슨이 유죄를 선고받아 법정관리를 신청

*교신저자 : 이성환(bizroad@pcu.ac.kr)

접수일 10년 05월 19일

수정일 (1차 10년 07월 20일, 2차 10년 08월 02일)

계재확정일 10년 08월 10일

했고, 이후 기업 지배구조와 회계를 강화하는 사바네스-옥슬리(Sarbanes-Oxley)법을 제정하여 계획단계인 컨설팅과 평가단계인 회계감사를 같이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쿠폰제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의 효과에 대한 그동안의 평가가 계획단계의 경영컨설팅 수혜기업의 만족도 조사 등 설문조사에 의한 방법에 국한되었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본 연구는 중소기업 쿠폰제경영컨설팅사업을 통한 사업참여 중소기업의 재무적 상황을 중심으로 사업참여 전·후의 재무상태를 비교하여 쿠폰제경영컨설팅 참여기업에 대한 재무성과를 실증분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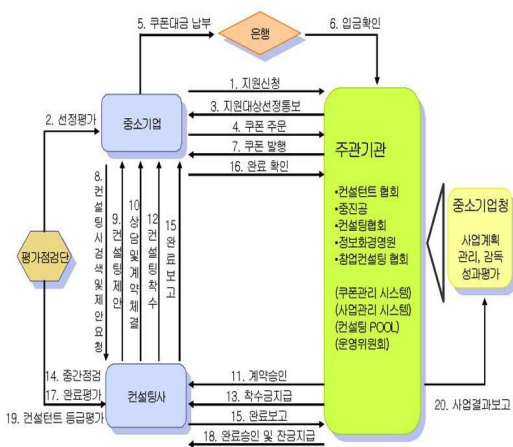
2.1 쿠폰제경영컨설팅[1]

2.1.1 의의

쿠폰제경영컨설팅은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의 자체 부담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컨설팅에 대해 그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하여 기업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결집, 중소기업의 건실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2.1.2 사업흐름도

2004년부터 쿠폰제 방식을 도입하면서 수요자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온라인 업무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온라인 업무시스템은 지원신청에서 완료보고에 이르기까지 전체 업무프로세스를 웹사이트를 통해 처리한다.



[그림 1] 쿠폰제경영컨설팅 흐름도

2.1.3 2005년 사업 지원내용

쿠폰제 컨설팅 지원분야는 일반과제컨설팅, 혁신과제 컨설팅, 상시경영자문서비스, 생산성혁신컨설팅, 창업기업지원서비스의 5개 분야로 분류하여, 각기 지원조건과 지원내용을 달리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1] 2005년 사업의 지원내용

지원분야	지 원 내 용	지원비율	지원규모 /한도
일반과제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의 경영관리 개선	70%	24억원 /7백만원
혁신과제	성장유망기업의 핵심역량 강화를 통한 혁신형 중소기업으로의 전환	60%	54.5억원 /20백만원
상시 경영자문	법률, 특허, 회계, 세무, 경영일반, 노무 등 2일이내의 단기과제에 대한 경영상담	80%	25억원 /6백만원
생산구조 고도화	작업개선, 공정개선, 원가절감 등 생산 현장개선	50~70%	44억원 /18백만원
창업기업 지원	사업성검토 창업후 초기 경영지도 등 창업기업 토달지원서비스	80%	22억원 /6백만원

2.2 중소기업청 성과평가 결과[2]

컨설팅 수행의 충실성과 부정행위 적발을 주요업무로 하는 평가점검단이 2006년 6월부터 7월 사이 컨설팅 완료 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64개 업체를 실시한 자료에 의해 사업참여 기업의 만족도를 ①컨설팅 수행과정, ②컨설팅의 효과, ③컨설팅트의 전문성과 성실성으로 분류하였다.

2.2.1 컨설팅 수행과정 평가

컨설팅수행의 핵심적인 내용인 문제점 진단·도출 및 프로세스를 기획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만족(57.3%), 매우만족(31.7%)순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89.0% 정도가 지원받은 컨설팅의 내용 및 프로세스의 기획능력에 대해 만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과제별로는 혁신과제 컨설팅의 67.9%가 컨설팅의 내용 및 프로세스를 기획하는 능력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 및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회사내 직원에 대한 학습 및 교육정도에 대해서는 만족(48.5%), 매우만족(26.8%)순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97.5% 정도가 컨설팅실시에 따른 직원에 대한 학습 및 교육정도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2.2 컨설팅 효과 평가

컨설팅효과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효과가 있다(52.0%)고 나타났으며, 효과가 매우높다(43.3%)와 함께 전반적으로 효과성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타났으며, 회사의 경영관리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지원받은 컨설팅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매우 적합한 내용이다(49.0%), 필요한 내용이다(48.9%) 순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97.9% 정도가 지원받은 컨설팅의 내용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이었다는 의견을 보임으로 컨설팅지원내용이 전반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컨설팅 결과의 활용도는 전체 응답자의 98.6% 정도가 컨설팅 결과가 회사에서 활용하는데 적합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창업공장설립대행, 사업타당성 등 창업이후 직접적인 업무에 컨설팅을 받아 컨설팅결과를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창업기업지원서비스 과제에서는 100%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3 컨설턴트의 전문성과 성실성 평가

컨설팅 분야에 대한 수행 컨설턴트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매우만족(46.8%), 만족(45.9%)순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99.7% 정도가 컨설팅을 수행한 컨설턴트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컨설팅을 수행하는 컨설턴트가 당초 계획한 컨설팅 내용을 충실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만족(45.9%), 매우만족(44.1%)순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99.1% 정도가 컨설팅 수행을 담당한 컨설턴트가 계획대비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기의 조사와는 별도로 2005년 컨설팅 받은 중소기업 중 상반기에 369개 업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효과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에서 조사한 결과 88%의 업체가 컨설팅 결과를 실제 업무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중 70%의 업체에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컨설팅의 실질적인 성과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조사대상 369개 업체 중 114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약 13억원의 정부예산(컨설팅금액 기준 19억원)이 지원된 이들 114개 기업에서 약 91억원의 금전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3. 실증분석 방법

3.1 조사설계

표본기업은 2005년 중소기업 쿠폰제경영컨설팅 사업 참여기업 1,627개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중 지원예산의

규모가 가장 크고, 업체에 지원금액이 가장 많은 혁신과제컨설팅(II)에 참여한 70개 기업을 추출하고, 2005년을 기준으로 이전 1년, 이후 2년의 재무제표를 확보 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 할 수 있는 34개 기업을 최종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 자료수집은 한국기업데이터(주) CRETOP(크레탑 : <http://www.cretop.com>)을 이용하였다.

3.2 변수의 선택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기존연구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난 재무지표들을 선택하고 있다.

변수의 선택과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Clarke(클라크)[4], Laurent(로랑)[5]의 연구에서는 재무지표중 수익성과 유동성이 유의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Dimitras et al.(디미트라스 등)[6]의 연구에서는 안전성, 수익성, 유동성과 활동성이 유의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Argenti(아르젠티)[7]는 성장성의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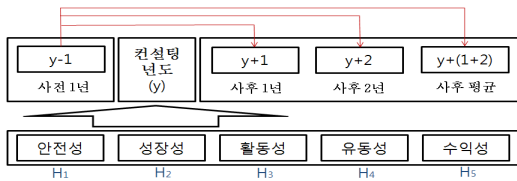
이를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재무적 성과분석에 관한 선행연구기초로 성장성, 수익성, 안전성, 유동성, 활동성 관련 재무비율을 사용하였으며, 중소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표 2와 같이 요인 내에서 15개의 독립변수로 선택하였다. 선정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3].

[표 2] 본 연구의 변수

구분	재 무 비 율
안전성 지표	부채비율(부채/자기자본*100)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100)
	비유동장기적합율 (비유동자산/자기자본+비유동부채*100)
성장성 지표	총자산증가율 (당기말총자산/전기말총자산*100-100)
	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100-100)
	자기자본증가율 (당기말자기자본/전기말자기자본*100-100)
활동성 지표	총자산회전율(매출액/총자산)
	재고자산회전율(매출액/재고자산)
	순운전자본회전율(매출액/순운전자본)
유동성 지표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100)
	당좌비율(당좌자산/유동부채*100)
	현금비율(현금자산/유동부채*100)
수익성 지표	매출총이익률(매출총이익/매출액*100)
	자기자본순이익률 (당기순이익/자기자본*100)
	총자산순이익률(당기순이익/총자산*100)

3.3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2005년 쿠폰제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의 재무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안전성, 성장성, 활동성, 유동성, 수익성과 관련된 15개 변수[8]를 사용하였으며, 2005년 쿠폰제경영컨설팅 참여 이후 기업의 재무적 성과를 통계적으로 실증분석 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그림 2] 연구모형

- [가설 1] **H1:** 쿠폰제경영컨설팅 전·후 기업의 안전성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2] **H2:** 쿠폰제경영컨설팅 전·후 기업의 성장성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3] **H3:** 쿠폰제경영컨설팅 전·후 기업의 활동성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4] **H4:** 쿠폰제경영컨설팅 전·후 기업의 유동성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5] **H5:** 쿠폰제경영컨설팅 전·후 기업의 수익성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3.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각 년도별 표본의 재무제표 자료를 이용하여 선정된 재무비율을 산출한 후 쿠폰제경영컨설팅 전과 후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Wilcoxon 부호순위검정을 실시하였다. Wilcoxon 부호순위검정 결과 안전성, 성장성, 활동성, 유동성, 수익성 중 차이를 보이는 재무지표를 중심으로 쿠폰제경영컨설팅의 재무성과를 도출하였으며, 통계프로그램 EXCEL 2007 및 SPSS win 15.0K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Wilcoxon 검정은 부호 검정을 계산하는 경우에 어떤 쌍의 두 숫자 중 어느 것이 더 큰가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부호검정(sign test)은 격차의 크기를 무시하는 상황에서 수행된다.

Wilcoxon의 matched-pairs signed-rank test(대응쌍 부호순위검정)은 어떤 쌍의 두 숫자간의 격차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 비모수검정방법이며, 진정한 격차가 존재할 경우에 그 진정한 격차를 더 많이 탐색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관점에서 개발된 검정법이다.

그러나 Wilcoxon검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칭분포에서 추출된 표본을 사용해야 하지만 정규분포 이외에도 많은 분포들이 대칭분포들이어서 표본이 정규분포된 모집단에서 추출되어야 한다는 가정에 의해서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Wilcoxon 검정은 다음 절차로 수행한다.

첫째, 각 쌍의 두 값들간의 격차를 계산해야 한다.
 둘째, 격차가 0이 아닌 모든 쌍의 격차들에 대해 격차의 부호는 무시하면서 절대치가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의 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격차 절대치가 0이 아니면 가장 작은 것에 순위 1을 설정하고, 격차 절대치가 증가함에 따라 2, 3, 4 등의 순서로 순위를 설정한다. 만약 격차 절대치가 같은 쌍들이 나타나 동물이 되면, 동물인 쌍들에 대해 평균 순위를 부여한다.

셋째, 순위를 설정한 후에, 양의 격차와 음의 격차를 나누어서 별도로 양의 격차의 순위 평균과 음의 격차의 순위 평균을 계산한다.

Wilcoxon검정에서 만약 귀무가설이 진실이면, 평균순위가 양 및 음의 격차들인 두 그룹들에 대해 유사하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리고 Wilcoxon검정은 관찰된 격차들 대신에 순위를 사용하므로, 큰 격차를 가진 쌍의 영향은 t 통계량을 사용하는 경우에 실제 관찰된 격차를 갖고 t 통계량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크게 감소한다[9].

4. 분석결과

4.1 기술통계량

본 연구에 사용된 연도별 기술통계량은 표 3과 같다.

[표 3] 연도별 기술통계량

2004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부채비율	-1254.74	664.38	143.06	293.49
자기자본비율	-8.66	87.15	44.59	24.31
비유동장기적합율	-1041.97	289.39	61.64	206.09
총자산증가율	-28.96	990.96	49.50	169.30
매출액증가율	-25.88	1437.99	86.52	244.33
자기자본증가율	-1481.82	1474.76	16.65	365.38
총자산회전율	0.31	3.98	1.48	0.85
재고자산회전율	0.00	11706.00	384.56	2004.04
순운전자본회전율	0.00	207.85	18.99	40.30
유동비율	27.02	771.24	196.81	187.12
당좌비율	17.42	681.20	151.81	162.66
현금비율	0.89	418.60	61.05	95.51
매출총이익율	-21.39	80.12	22.50	19.74
자기자본순이익율	-777.22	339.63	31.71	168.94
총자산순이익율	-32.89	39.71	5.35	14.94

2005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부채비율	-2833.41	4527.71	166.52	978.71
자기자본비율	-7.36	85.63	41.66	23.20
비유동장기적합율	7.24	4608.27	218.34	777.25
총자산증가율	-42.89	162.62	25.38	44.94
매출액증가율	-46.88	334.49	31.04	67.13
자기자본증가율	-280.83	167.64	9.56	70.90
총자산회전율	0.44	3.98	1.42	0.72
재고자산회전율	0.00	8660.00	297.94	1485.52
순운전자본회전율	-34.97	555.22	24.40	96.05
유동비율	30.32	668.73	187.97	153.50
당좌비율	20.40	524.20	149.00	131.41
현금비율	0.65	355.07	53.06	86.11
매출총이익율	-25.98	87.42	23.61	21.56
자기자본순이익율	-232.50	566.90	62.48	137.08
총자산순이익율	-21.43	46.58	7.14	12.69
2006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부채비율	-449.00	1430.08	168.45	314.10
자기자본비율	-63.46	81.93	36.32	31.76
비유동장기적합율	11.92	6643.12	286.31	1125.10
총자산증가율	-48.06	75.05	15.37	25.86
매출액증가율	-71.15	106.00	12.43	44.68
자기자본증가율	-1549.41	379.16	-22.13	281.98
총자산회전율	0.19	2.36	1.25	0.50
재고자산회전율	0.00	97.33	16.98	22.69
순운전자본회전율	0.00	47.98	10.87	11.54
유동비율	18.97	599.52	176.60	145.05
당좌비율	12.94	580.94	144.12	141.18
현금비율	0.04	453.37	52.37	92.61
매출총이익율	-153.44	87.70	13.41	43.17
자기자본순이익율	-965.66	448.78	12.30	256.06
총자산순이익율	-94.42	35.01	-0.04	23.75
2007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부채비율	-466.69	1995.97	179.35	428.33
자기자본비율	-99.12	88.93	34.97	43.32
비유동장기적합율	11.41	822.50	120.96	172.92
총자산증가율	-42.93	143.71	20.81	38.33
매출액증가율	-95.90	98.69	0.74	44.29
자기자본증가율	-203.40	805.20	41.68	148.15
총자산회전율	0.03	2.95	1.07	0.62
재고자산회전율	0.00	228.36	18.49	38.49
순운전자본회전율	-5.94	209.90	12.29	35.24
유동비율	9.27	1061.14	193.96	209.77
당좌비율	6.90	1034.06	162.77	200.06
현금비율	0.16	424.97	53.70	83.93
매출총이익율	-1195.02	79.43	-19.64	209.63
자기자본순이익율	-412.06	639.92	43.55	196.85
총자산순이익율	-48.38	58.22	1.76	18.62

4.2 안전성에 관한 분석결과(가설 1)

[표 4]는 표본기업의 안전성관련 재무비율에 대한 평균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패널별 안전성관련 재무비율의 평균값은 전반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은 감소한 반면, 부채비율 및 비유동장기적합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을 기준 년으로 한 전산업의 가중치[10]를 적용한 가중값과의 비교에서는 자기자본비율 및 비유동장기적합율은 감소한 반면, 부채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안전성지표 추세분석

구분	기본값		실제값		가중값		차이%	
	전 1년	기준년	후 1년	후 2년	후 1년	후 2년	후 1년	후 2년
부채비율	148.21	117.95	151.36	162.26	112.03	153.04	135	106
자기자본비율	44.06	40.44	34.22	32.9	46.44	34.02	74	97
비유동장기적합율	66.1	222.68	291.64	140.47	221.50	289.09	132	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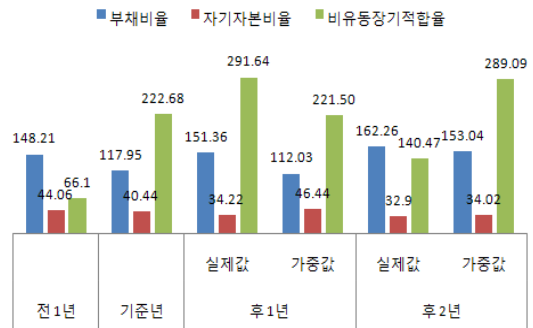


표 5는 표본기업의 쿠폰제경영컨설팅 전과 후의 안전성관련 비율에 대한 Wilcoxon 부호순위검정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본전체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컨설팅 전 1년 대 컨설팅 후 1년부터 2년까지 자기자본비율은 컨설팅 전의 음의순위가 부채비율 및 비유동장기적합율은 컨설팅 후인 양의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의 안전성에 관한 Wilcoxon 부호순위검정 통계량에서 검정통계량 Z값의 근사유의확률(근사 p-값)이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및 비유동장기적합율 모두 5% 유의수준을 벗어나 가설은 기각되며, 쿠폰제경영컨설팅 전과 후의 안전성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표 5] 안전성지표 Wilcoxon 부호순위검정

구 분		N	평균 순위	순위합	
-1년 대 +1년	부채비율	음의순위	17	19.35	329.00
		양의순위	17	15.65	266.00
		동률	0		
		합계	34		
	자기자본 비율	음의순위	19	19.26	366.00
		양의순위	15	15.27	229.00
		동률	0		
		합계	34		
	비유동 장기적합율	음의순위	13	17.92	233.00
		양의순위	20	16.40	328.00
		동률	1		
		합계	34		
-1년 대 +2년	부채비율	음의순위	20	18.30	366.00
		양의순위	14	16.36	229.00
		동률	0		
		합계	34		
	자기자본 비율	음의순위	17	20.00	340.00
		양의순위	17	15.00	255.00
		동률	0		
		합계	34		
	비유동 장기적합율	음의순위	15	18.07	271.00
		양의순위	19	17.05	324.00
		동률	0		
		합계	34		
-1년 대 +2년간 평균	부채비율	음의순위	16	20.88	334.00
		양의순위	18	14.50	261.00
		동률	0		
		합계	34		
	자기자본 비율	음의순위	20	17.55	351.00
		양의순위	14	17.43	244.00
		동률	0		
		합계	34		
	비유동 장기적합율	음의순위	13	18.50	240.50
		양의순위	21	16.88	354.50
		동률	0		
		합계	34		

-음의순의 : 컨설팅 후 < 컨설팅 전
 -양의순의 : 컨설팅 후 > 컨설팅 전
 -동률 : 컨설팅 후 = 컨설팅 전

[표 6] 안전성지표 Wilcoxon 부호순위검정 통계량

구 분	Z	근사유의확률 (양측)	
-1년 대	부채비율	-0.539	0.590
	자기자본비율	-1.171	0.242
+1년	비유동장기적합율	-0.849	0.396
	부채비율	-1.171	0.242
-1년 대 +2년	자기자본비율	-0.727	0.467
	비유동장기적합율	-0.453	0.651
-1년 대	부채비율	-0.624	0.533
	자기자본비율	-0.915	0.360
+2년 평균	비유동장기적합율	-0.975	0.330

4.3 성장성에 관한 분석결과(가설 2)

표 7은 표본기업의 성장성관련 재무비율에 대한 평균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패널별 성장성관련 재무비율의 평균값은 전반적으로 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및 자기자본증가율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영컨설팅 후 2년의 자기자본증가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을 기준 년으로 한 전산업의 가중치[10]를 적용한 가중값과의 비교에서는 전반적으로 총자산증가율, 매출액증가율 및 자기자본증가율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영컨설팅 후 2년의 자기자본증가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성장성지표 추세분석

구 분	기본값		실제값		가중값		차이%	
	전 1년	기준년	후 1년	후 2년	후 1년	후 2년	후 1년	후 2년
총자산증가율	49.89	26.02	16.23	21.52	26.24	22.89	62	94
매출액증가율	88.33	30.31	11.18	-0.83	42.43	17.79	26	-5
자기자본증가율	16.87	6.48	-11.52	42.88	4.85	-14.91	-238	-2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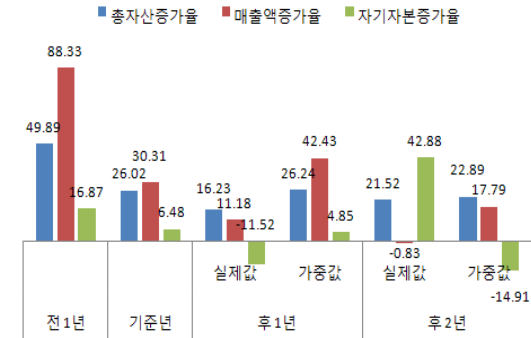


표 8은 표본기업의 쿠폰제경영컨설팅 전과 후의 성장성관련 비율에 대한 Wilcoxon 부호순위검정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본전체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컨설팅 전 1년 대 컨설팅 후 1년부터 2년까지 총자산증가율은 컨설팅 전의 음의순위가 매출액증가율은 컨설팅 후인 양의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자본증가율은 동률로 나타났다.

표 9의 성장성에 관한 Wilcoxon 부호순위검정 통계량에서 검정통계량 Z값의 근사유의확률(근사 p-값)이 총자산증가율 및 자기자본증가율은 5% 유의수준을 벗어나 가설은 기각되며, 쿠폰제경영컨설팅 전과 후의 성장성의 총자산증가율 및 자기자본증가율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매출액증가율은 경영컨설팅 전과 후 모두 5% 유의수준으로 가설은 기각하지 않으며, 쿠폰제경영컨설팅 전과

후의 성장성의 매출액증가율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매출액증가율은 역의 영향력(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성장성지표 Wilcoxon 부호순위검정

구 분		N	평균 순위	순위합	
-1년 대 +1년	총자산 증가율	음의순위	19	17.26	328.00
		양의순위	15	17.80	267.00
		동률	0		
		합계	34		
	매출액 증가율	음의순위	21	21.38	449.00
		양의순위	13	11.23	146.00
		동률	0		
		합계	34		
	자기자본 증가율	음의순위	17	17.41	296.00
		양의순위	17	17.59	299.00
		동률	0		
		합계	34		
-1년 대 +2년	총자산 증가율	음의순위	17	16.71	284.00
		양의순위	17	18.29	311.00
		동률	0		
		합계	34		
	매출액 증가율	음의순위	28	18.93	530.00
		양의순위	6	10.83	65.00
		동률	0		
		합계	34		
	자기자본 증가율	음의순위	15	17.47	262.00
		양의순위	19	17.53	333.00
		동률	0		
		합계	34		
-1년 대 +2년간 평균	총자산 증가율	음의순위	16	17.50	280.00
		양의순위	18	17.50	315.00
		동률	0		
		합계	34		
	매출액 증가율	음의순위	26	19.27	501.00
		양의순위	8	11.75	94.00
		동률	0		
		합계	34		
	자기자본 증가율	음의순위	17	15.76	268.00
		양의순위	17	19.24	327.00
		동률	0		
		합계	34		

-음의순의 : 컨설팅 후 < 컨설팅 전
 -양의순의 : 컨설팅 후 > 컨설팅 전
 -동률 : 컨설팅 후 = 컨설팅 전

[표 9] 성장성지표 Wilcoxon 부호순위검정 통계량

구 분		Z	근사유의확률 (양측)
-1년 대 +1년	총자산증가율	-0.521	0.602
	매출액증가율	-2.590	0.010
	자기자본증가율	-0.026	0.980
-1년 대 +2년	총자산증가율	-0.231	0.817
	매출액증가율	-3.975	0.000
	자기자본증가율	-0.607	0.544
-1년 대 +2년 평균	총자산증가율	-0.299	0.765
	매출액증가율	-3.479	0.001
	자기자본증가율	-0.504	0.614

4.4 활동성에 관한 분석결과(가설 3)

표 10은 표본기업의 활동성관련 재무비율에 대한 평균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패널별 활동성관련 재무비율의 평균값은 전반적으로 총자산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및 순운전자본회전율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을 기준 년으로 한 전산업의 가중치[10]를 적용한 가중값과의 비교에서는 전반적으로 총자산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및 순운전자본회전율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고자산회전율 및 순운전자본회전율은 경영 컨설팅 후 2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활동성지표 추세분석

구 분	기본값		실제값		가중값		차이%	
	전 1년	기준년	후 1년	후 2년	후 1년	후 2년	후 1년	후 2년
총자산회전율	1.49	1.43	1.24	1.04	1.38	1.23	90	85
재고자산회전율	386	299.04	17.64	19.02	291.05	16.74	6	114
순운전자본회전율	19.82	25.09	11.37	12.61	26.25	12.06	43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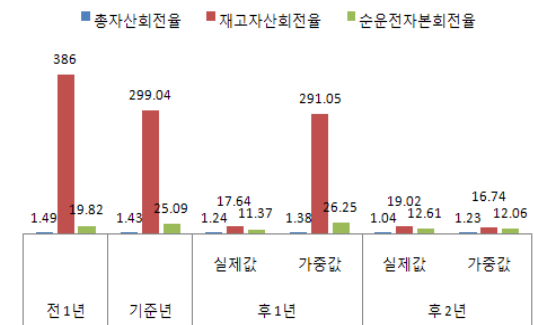


표 11은 표본기업의 쿠폰제경영컨설팅 전과 후의 활동성관련 비율에 대한 Wilcoxon 부호순위검정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본전체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컨설팅 전 1년 대 컨설팅 후 1년부터 2년까지 총자산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및 순운전자본회전율 모두 컨설팅 전의 음의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활동성지표 Wilcoxon 부호순위검정

구 분		N	평균 순위	순위합	
-1년 대 +1년	총자산 회전율	음의순위	21	18.81	395.00
		양의순위	13	15.38	200.00
		동률	0		
		합계	34		
	재고자산 회전율	음의순위	18	18.22	328.00
		양의순위	13	12.92	168.00
		동률	3		
		합계	34		
	순운전자본회전율	음의순위	19	17.74	337.00
		양의순위	14	16.00	224.00
		동률	1		
		합계	34		
-1년 대 +2년	총자산 회전율	음의순위	26	18.46	480.00
		양의순위	8	14.38	115.00
		동률	0		
		합계	34		
	재고자산 회전율	음의순위	15	18.60	279.00
		양의순위	16	13.56	217.00
		동률	3		
		합계	34		
	순운전자본회전율	음의순위	21	18.52	389.00
		양의순위	12	14.33	172.00
		동률	1		
		합계	34		
-1년 대 +2년간 평균	총자산 회전율	음의순위	22	20.11	442.50
		양의순위	12	12.71	152.50
		동률	0		
		합계	34		
	재고자산 회전율	음의순위	16	17.56	281.00
		양의순위	15	14.33	215.00
		동률	3		
		합계	34		
	순운전자본회전율	음의순위	21	17.90	376.00
		양의순위	12	15.42	185.00
		동률	1		
		합계	34		

-음의순의 : 컨설팅 후 < 컨설팅 전
 -양의순의 : 컨설팅 후 > 컨설팅 전
 -동률 : 컨설팅 후 = 컨설팅 전

표 12의 활동성에 관한 Wilcoxon 부호순위검정 통계량에서 검정통계량 Z값의 근사유의확률(근사 p-값)이 전반적으로 총자산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및 순운전자본회전율 5% 유의수준을 벗어나 가설은 기각되며, 쿠폰제 경영컨설팅 전과 후의 활동성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총자산회전율은 경영컨설팅 전과 후 2년에서 5% 유의수준으로 가설은 기각하지 않으며, 쿠폰제경영컨설팅 전과 후의 활동성의 총자산회전율은 차이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총자산회전율은 역의 영향력(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활동성지표 Wilcoxon 부호순위검정 통계량

구 분	Z	근사유의확률 (양측)	
-1년 대 +1년	총자산회전율	-1.667	0.095
	재고자산회전율	-1.568	0.117
	순운전자본회전율	-1.010	0.313
-1년 대 +2년	총자산회전율	-3.121	0.002
	재고자산회전율	-0.607	0.544
	순운전자본회전율	-1.939	0.053
-1년 대 +2년 평균	총자산회전율	-2.479	0.013
	재고자산회전율	-0.647	0.518
	순운전자본회전율	-1.706	0.088

4.5 유동성에 관한 분석결과(가설 4)

표 13은 표본기업의 유동성관련 재무비율에 대한 평균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패널별 유동성관련 재무비율의 평균값은 전반적으로 유동비율, 당좌비율 및 현금비율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을 기준 년으로 한 전산업의 가중치[10]를 적용한 가중값과의 비교에서는 전반적으로 유동비율, 당좌비율 및 현금비율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당좌비율 및 현금비율은 경영컨설팅 후 2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유동성지표 추세분석

구 분	기본값		실제값		가중값		차이%	
	전 1년	기준년	후 1년	후 2년	후 1년	후 2년	후 1년	후 2년
유동비율	193.18	185.39	173.14	190.75	187.18	174.91	93	109
당좌비율	150.66	148.3	142.7	161.06	150.05	141.89	95	114
현금비율	60.26	52.87	52.42	53.61	54.09	51.26	97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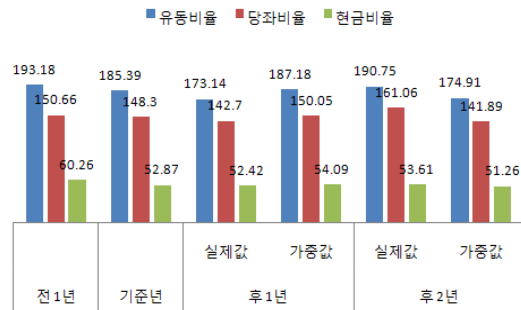


표 14는 표본기업의 쿠폰제경영컨설팅 전과 후의 유동성관련 비율에 대한 Wilcoxon 부호순위검정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본전체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컨설팅 전 1년 대 컨설팅 후 1년부터 2년까지 유동비율 및 현금비율은 컨설팅 전의 음의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당좌비율은 동률로 나타났다.

[표 14] 유동성지표 Wilcoxon 부호순위검정

구 분		N	평균 순위	순위합	
-1년 대 +1년	유동비율	음의순위	19	18.74	356.00
		양의순위	14	14.64	205.00
		동률	1		
		합계	34		
	당좌비율	음의순위	18	18.61	335.00
		양의순위	16	16.25	260.00
		동률	0		
		합계	34		
	현금비율	음의순위	19	18.32	348.00
		양의순위	15	16.47	247.00
		동률	0		
		합계	34		
-1년 대 +2년	유동비율	음의순위	19	17.95	341.00
		양의순위	15	16.93	254.00
		동률	0		
		합계	34		
	당좌비율	음의순위	17	17.65	300.00
		양의순위	17	17.35	295.00
		동률	0		
		합계	34		
	현금비율	음의순위	23	16.30	375.00
		양의순위	11	20.00	220.00
		동률	0		
		합계	34		
-1년 대 +2년간 평균	유동비율	음의순위	18	19.33	348.00
		양의순위	16	15.44	247.00
		동률	0		
		합계	34		
	당좌비율	음의순위	17	18.94	322.00
		양의순위	17	16.06	273.00
		동률	0		
		합계	34		
	현금비율	음의순위	16	19.94	319.00
		양의순위	18	15.33	276.00
		동률	0		
		합계	34		

-음의순위 : 컨설팅 후 < 컨설팅 전
 -양의순위 : 컨설팅 후 > 컨설팅 전
 -동률 : 컨설팅 후 = 컨설팅 전

표 15의 유동성에 관한 Wilcoxon 부호순위검정 통계량에서 검정통계량 Z값의 근사유의확률(근사 p-값)이 유

동비율, 당좌비율 및 현금비율 모두 5% 유의수준을 벗어나 가설은 기각되며, 쿠폰제경영컨설팅 전과 후의 유동성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표 15] 유동성지표 Wilcoxon 부호순위검정 통계량

구 분	Z	근사유의확률(양측)	
-1년 대 +1년	유동비율	-1.349	0.177
	당좌비율	-0.641	0.521
	현금비율	-0.863	0.388
-1년 대 +2년	유동비율	-0.744	0.457
	당좌비율	-0.043	0.966
	현금비율	-1.325	0.185
-1년 대 +2년 평균	유동비율	-0.863	0.388
	당좌비율	-0.419	0.675
	현금비율	-0.368	0.713

4.6 수익성에 관한 분석결과(가설 5)

표 16은 표본기업의 수익성관련 재무비율에 대한 평균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패널별 수익성관련 재무비율의 평균값은 전반적으로 매출액총이익율, 자기자본순이익율 및 총자산순이익율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영 컨설팅 후 2년 자기자본순이익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을 기준 년으로 한 전산업의 가중치[10]를 적용한 가중값과의 비교에서는 전반적으로 매출액총이익율, 자기자본순이익율 및 총자산순이익율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기자본순이익율 및 총자산순이익율은 경영 컨설팅 후 2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수익성지표 추세분석

구 분	기본값		실제값		가중값		차이%	
	전 1년	기준년	후 1년	후 2년	후 1년	후 2년	후 1년	후 2년
매출액총이익율	24.19	24.64	12.66	-19.69	24.09	12.69	53	-155
자기자본순이익율	34.37	63.96	5.75	39.24	51.36	5.87	11	669
총자산순이익율	6.28	7.68	-1.37	0.87	6.43	-1.39	-21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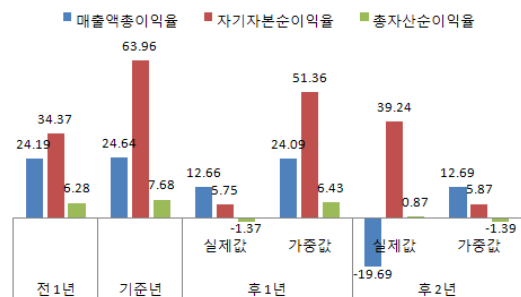


표 17은 표본기업의 쿠폰제경영컨설팅 전과 후의 수익성관련 비율에 대한 Wilcoxon 부호순위검정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표본전체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컨설팅 전 1년 대 컨설팅 후 1년부터 2년까지 매출액총이익율 및 총자산순이익율은 컨설팅 전의 음의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자본순이익율은 컨설팅 후의 양의순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수익성지표 Wilcoxon 부호순위검정

구 분		N	평균 순위	순위합	
-1년 대 +1년	매출총이익율	음의순위	18	19.28	347.00
		양의순위	16	15.50	248.00
		동률	0		
		합계	34		
	자기자본순이익율	음의순위	17	16.00	272.00
		양의순위	17	19.00	323.00
		동률	0		
		합계	34		
	총자산순이익율	음의순위	20	18.15	363.00
		양의순위	14	16.57	232.00
		동률	0		
		합계	34		
-1년 대 +2년	매출총이익율	음의순위	19	20.18	383.50
		양의순위	15	14.10	211.50
		동률	0		
		합계	34		
	자기자본순이익율	음의순위	15	19.00	285.00
		양의순위	19	16.32	310.00
		동률	0		
		합계	34		
	총자산순이익율	음의순위	20	19.33	386.50
		양의순위	14	14.89	208.50
		동률	0		
		합계	34		
-1년 대 +2년간 평균	매출총이익율	음의순위	21	18.00	378.00
		양의순위	13	16.69	217.00
		동률	0		
		합계	34		
	자기자본순이익율	음의순위	15	17.27	259.00
		양의순위	19	17.68	336.00
		동률	0		
		합계	34		
	총자산순이익율	음의순위	21	17.38	365.00
		양의순위	13	17.69	230.00
		동률	0		
		합계	34		

-음의순위 : 컨설팅 후 < 컨설팅 전
 -양의순위 : 컨설팅 후 > 컨설팅 전
 -동률 : 컨설팅 후 = 컨설팅 전

표 18의 수익성에 관한 Wilcoxon 부호순위검정 통계량에서 검정통계량 Z값의 근사유의확률(근사 p-값)이 매출액총이익율, 자기자본순이익율 및 총자산순이익율 모두 5% 유의수준을 벗어나 가설은 기각되며, 쿠폰제경영컨설팅 전과 후의 수익성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표 18] 수익성지표 Wilcoxon 부호순위검정 통계량

구 분	Z	근사유의확률 (양측)	
-1년 대 +1년	매출총이익율	-0.846	0.397
	자기자본순이익율	-0.436	0.663
	총자산순이익율	-1.120	0.263
-1년 대 +2년	매출총이익율	-1.470	0.141
	자기자본순이익율	-0.214	0.831
-1년 대 +2년 평균	매출총이익율	-1.376	0.169
	총자산순이익율	-1.154	0.248

5. 결론

본 연구는 중소기업 쿠폰제경영컨설팅 사업을 통한 사업참여 중소기업의 재무적 상황을 중심으로 사업참여 전·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본 사업의 시행성과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05년도 중소기업 쿠폰제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중 혁신과제컨설팅(II)부문의 컨설팅을 수행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재무비율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사업참여 이전 및 이후의 재무상황 변화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5년을 기준으로 이전 1년 및 이후 2년을 비교하였으며, 2005년 중소기업 쿠폰제경영컨설팅 지원사업 혁신과제컨설팅(II) 70업체 중 사업참여 이전 및 이후 2년간의 자료를 구할 수 있는 34개 업체를 대상으로 EXCEL 2007 및 SPSS win 15.0K를 이용하여 각 년도별 표본의 재무비율을 산출한 후 쿠폰제경영컨설팅 전·후 Wilcoxon 부호순위검정 실시하여 경영컨설팅 전과 후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경영컨설팅 전·후 전반적으로 연구가설은 기각되고 성장성지표의 매출액증가율 및 활동성지표의 경영컨설팅 후 2년 총자산회전율은 기각되지 않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역의 영향력(설명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쿠폰제경영컨설팅사업의 실질적

인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쿠폰제경영컨설팅 사업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전체에 대한 결과로 볼 수 없다. 앞으로 쿠폰제경영컨설팅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법으로 전체적인 재무성과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쿠폰제경영컨설팅 참여기업에 따라 규모별, 형태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업경영분석(2007)에 의거 전산업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이를 반영하지 못했으며, 앞으로 규모별, 형태별 등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중소기업청, “2005년 중소기업 쿠폰제경영컨설팅 사업 공고”, 2005.
- [2] 성녹영, “영세자영업 지원대책에 관한 비교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2006년 중소기업청 자체자료 재인용)
- [3] 이성환, “중소기업 도산예측에 회계정보 유용성에 관한 연구”, 산학기술학회 논문지, 제9권, 제5호, pp.1460-1466, 10월, 2008.
- [4] Clarke, P. J., "An Empirical Analysis of Useful Financial Ratios : an Exploratory Study of Irish public Quoted Companies“, *Irish Business and Administrative Research*, 11, pp.40-57, 1990.
- [5] Laurent, C. R., "Improving the Efficiency and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Ratio Analysis", *Journal of Business Finance and Accounting*, pp.401-413, 1979.
- [6] Dimitras, A. I., Zanakis, S. H., Zopounidis, C., "A Survey of Business Failure with an Emphasis on Prediction Methods and Industrial Application", *European Journal of Operational Research*, 90, pp.487-513, 1996.
- [7] Argenti, J., *Corporate Collapse : The Causes and Symptoms*. New York : Wiley, pp.5-6, 1976.
- [8] 공두진, “ERP시스템의 성공요인이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 [9] Norušis, Marija J., *SPSS 15.0 Guide to Data Analysis*, Prentice Hall. *SPSS Statistics 17.0*, pp.394-395, 2006.
- [10] 한국은행, 「2007 기업경영분석」, 한국은행, pp.108-109, 2008.

이 성 환(Sung-Hwan Lee)

[정회원]



- 1990년 8월 :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경영학석사)
- 2007년 8월 : 배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박사)
- 1995년 : 경영지도사(제5635호)
- 2009년 12월 ~ 현재 : 배재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경영컨설팅, 시스템 창업, 소상공인